

승엄한 앙상블

최병훈展 5. 13~7. 4 조현화랑
차계남展 6. 8~9. 26 대구미술관

매체의 변화는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예술가 개인에게는 창작의 방법을 전환할 기회가 되었다. 이전에는 장식성과 기능성을 주목적으로 한 공예나 디자인이 순수미술과 다른 범주로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전시장에 일상 사물이 작품으로 아무렇지 않게 놓이면서 응용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가 무너졌다. 예술가도 창작 재료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고,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매개체를 찾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차별화한 기법과 재료로 자기 자신의 정신성을 작품으로 구현한다.

이 지점에서 부산 조현화랑과 대구미술관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최병훈과 차계남의 개인전은 모두 사물의 물성을 탐색하고 그 울림을 전달하는 자리로 읽을 수 있겠다. 최병훈과 차계남의 작품은 ‘전달자’ 역할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개념이 지배적인 현대미술의 경향과 다르게 이들은 조각이나 공예의 기법적인 요소를 품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승엄미를 예술로 승화한다.

침묵의 자리

최병훈은 가구를 예술 표현 매체로 삼아 1세대 아트퍼니처 아티스트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트퍼니처라는 개념이 전무했던 시기에도 작가는 디자인과 예술의 결합을 주장하였으며, 1993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아트퍼니처라는 용어를 정립하여 널리 사용하였다. 그는 동일한 사물을 두고 앉기 위한 의자, 보기 위한 조각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미술개념에 머물지 않았을뿐더러 나무, 돌 등 자연에서 구한 오브제에 자신의 사유와 철학을 담았다.

이번 개인전의 구성은 제목 그대로 ‘침묵의 자리’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부가적인 연출이 없다. 어둡고 고요한 공간에 최소한의 개입만 허용된 작품이 놓여 있다. 출품된 작품은 총 3점으로 모두 2021년에 새롭게 제작된 ‘태초의 잔상’ 시리즈 작품이다. 작품 〈Afterimage of Beginning 021-550〉, 〈Afterimage of Beginning 021-552〉는 서로 공간을 공유하듯 자연스럽게 바닥에 놓여 있고, 작품 〈Afterimage of Beginning 021-542〉는 별도의 공간을 점유하듯 곳곳이 서 있다. 세 작품의 재료는 모두 바잘트(basalt)다. 바잘트는 인도네시아산 현무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온도를 견뎌온 탓에 겉은 흑갈색 속은 짙은 검은색을 띤다.

최병훈은 자신의 예술관을 구현할 최적의 매개체로 자연석을 선택하였다. 표면을 갈아내고 광택을 입히는 식으로 자연석의 투박함과 매끈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드러냄의 얕음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아가는 길에 나는 자연을 만난다. 그 길 또한 깊고 멀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거친 표면을 갈아내고 매끈한 내부를 발견하는 과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에 흐르는 시간을 사유하게 만든다. 즉 이번 전시에 나온 의자 형태의 바잘트 조각은 마모와 광택 내기라는 작가의 조각적 수행이 낳은 작품이지만, 나에게는 현무암의 모습이 조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현상의 결과물처럼 다가왔다.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침식되고, 육중한 무게를 견디다보니 움푹 파인 흔적처럼 말이다.

〈Afterimage of Beginning 021-552〉는 두 개의 바잘트 조각이 하나의 오브제처럼 놓여 있는 작품이다. 마치 벼락 맞은 바윗돌처럼 땀장 쪼개져 있지만, 긴장감이 감돈다기보단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조금 더 가까이 앉기 위해 의자를 당기듯 친숙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전시장 안쪽에 단독으로 서 있는 작품 〈Afterimage of Beginning 021-542〉는 누워 있는 다른 두 작품보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작가는 단순히 조형적인 형태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특성을 부각하여 자연물과 예술작품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최병훈 〈Afterimage of Beginning 021-550〉(앞), 〈Afterimage of Beginning 021-552〉(뒤) 바잘트 현무암, 자연석 2021_“아트퍼니처” 작가 최병훈. 가구와 예술의 결합으로 실용과 조형을 탐구한다. 두 달간 수작업으로 돌 표면을 갈아내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꾀한다.





위 · 차계남 〈무제〉 한지에 먹
422×732×427cm 2011
아래 · 차계남 개인전 전경
2021 대구미술관_차계남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원로
작가다. 이번 개인전에는 '색과
질료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
한지나 종이 등을 꼬아 겹겹이
쌓는 '평면 부조'로 회화와
공예를 넘나든다.

작가는 묵직한 자연석의 외침을 전시장으로 오롯이 가져오기 위해 긴 시간 고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겹겹의 시간을 쌓아가듯 조각을 매만졌을 것이다.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완성된 조각은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본연의 자연물처럼 보여 오히려 깊은 무게감을 자아낸다. 이 작품을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작가의 철학적 태도가 반영된 표상으로 볼 수 있을까. 전시된 작품은 단 세 점뿐이지만, 최병훈의 예술적 궤적에서 나오는 묵직한 울림이 전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자연이 품고 있는 시간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그의 점양이 곳곳마다 밀도 있게 배어 있다.

사유의 시간

차계남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지속하는 경북의 중견 작가 및 원로 작가를 소개하는 대구미술관의 '다티스트 (DArtist)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총 33점의 작품이 세 개의 전시 공간에 나뉘어 배치되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두 전시 공간을 잇는 개방된 공간에서 사이잘 마(sisal hemp)를 재료로 한 대형 설치작품 3점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사이잘 마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천연 섬유로 차계남 작업의 주요 재료이다. 이 섬유 조형물은 각각 1993년, 1998년, 2000년에 제작되었으며 재료와 색에 대한 작가의 대표적인 특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차계남 작품은 먼 거리에선 육중한 하나의 입체로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무수한 실이 촘촘히 교차되어 응집된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실뭉치는 공간을 지지해주는 주춧돌처럼 전시의 중심을 잡아준다. 입체작품이 설치된 공간 외의 전시장에는 한지에 붓글씨로 불교의 반야심경을 쓰고, 그것을 자르고 한 가닥씩 꼬아 면에 붙인 부조작업이 벽에 걸리거나 바닥에 놓여 있다. 작가는 “시간성을 한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수많은 실을 종횡으로 촘촘히 직조해 만든 작품은 관객에게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이 사유의 시간을 권유한다. 보는 이에게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강요하지 않고 찬찬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작가는 모든 작품을 무제(untitled)로 하고 작업의 정보를 수치화하여 캡션에 기록하였다.

전시는 차계남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를 다루지만 이를 연대별로 구성하진 않았다. 입체와 평면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작품의 색조와 깊이감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관객은 적절히 짜인 동선에

따라 배치된 작품을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 평면작품을 벽에만 걸지 않고 병풍 형태로 설치한 덕에 여러 작품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겹겹의 공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한지의 가닥이 얹히고설킨 물성이 자아내는 화면의 공간감은 마치 거대한 강의 잔물결처럼 넘실댄다. 한지에 흐르는 물결이 전시 공간을 메우고 관객은 마치 파도를 타고 넘어다니는 듯한 유영의 즐거움을 전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공간일까.

전시의 주축은 차계남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와 색이다. 그는 섬유 자체만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최소한의 색, 즉 검정과 하양만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재료는 표현을 위한 수동적인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의미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도구의 역할을 한다. 색은 있는 그대로의 한지 색감이거나, 종이에 먹으로 쓴 붓글씨의 색감이므로 거뭇더라도 인위적이지 않다. 명도가 다양한 흑백의 색조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색을 뿜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전시의 마지막 동선에 배치된 2011년 작품 〈무제〉는 한지를 꼬아 구성한 대형 작품으로, 세로로 줄줄이 이어 붙인 한지가 흘러내리는 모습은 흡사 폭포의 물줄기처럼 거대한 자연 경관을 마주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차계남은 단순한 부조나 입체물을 제작하는 게 아니다. 재료가 평면을 채운 농밀한 화면으로, 그리고 그 각각의 화면이 모인 엄숙한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그곳에 방문한 관객은 작가가 구현한 ‘또 다른 공간’에서 인공과 자연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리해서 무언가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간과 시간에 스며든다.

/ 황 서 미

